

2023년 상반기 북중 무역 결산: 코로나 엔데믹 전환

최장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choi.j@kiep.go.kr

I. 머리말

2022년 8월 공식적으로 코로나 종식을 선언한 북한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중 수입을 집중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코로나 엔데믹으로 전환된 이후 북한은 수입 화물의 방역 절차와 기간을 단축하고, 육로 화물열차를 1일 2회 이상 운용하고 있다. 올해 2월 중순에는 중국 훈춘과 북한 나선시 간 화물트럭 운행도 재개되었다. 북한경제는 발전을 시도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수입 확대를 통한 버티기 정책을 펼치면서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향후 경제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의도로 평가된다. 그 결과 2023년, 상반기 대중 수입은 9억 2,395만달러로 전년 동기 3억 362만달러 대비 204.3%가 증가하였다. 대중 수출은 1억 3,509만달러로 전년 동기 3,605만달러 대비 274.7% 증가하였다.

최근 북한의 대외 무역 환경은 2018~19년(UN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가 단행되기 이전)으로 회귀하였다고 볼 수 있다. 2018~19년 상반기 평균 대중 수입액은 10억 6,752만달러, 수출액은 1억 664만달러였는데, 2023년 상반기에는 수입과 수출은 각각 2018~19년 상반기의 86.6%, 126.7% 수준을 달성하였다.

본고에서는 2023년 상반기 북중 무역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코로나 엔데믹, 산업생산, 농업생산과 식량, 대외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최근 북중 무역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2023년 상반기 북중 무역에서의 주요 이슈는 북한 사회가 코로나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무역이 확대되고 상품무역수지가 악화되었다는

점, 산업생산 정상화를 시도하면서 밀무역 재개 조짐이 보인다는 점, 봄철 농사 대비와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업 품목의 수입이 확대되었다는 점,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교역)이 재개되었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각각의 내용을 이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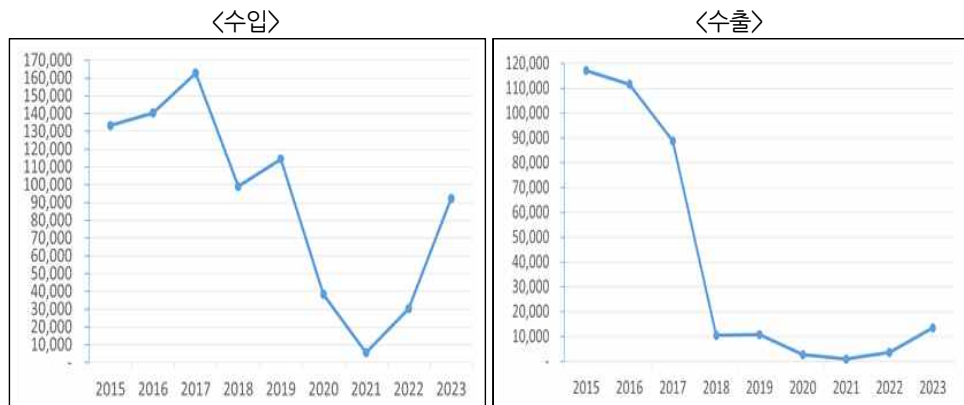
II. 코로나 엔데믹 전환과 북중 무역의 확대

1. 북중 무역 규모의 확대와 상품 수지 악화

2023년 상반기 북한의 대중 무역은 수입과 수출 모두 증가세가 확연하다. 상술하였듯이 대중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4.3% 증가하였는데, 무역 규모는 물론 수입되는 품목의 수도 증가하였다. 하지만 쌀과 섬유·의류 원부자재 등 특정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품목 집중도가 높다는 것은 수입 규모의 확대를 북한경제 전반의 회복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대중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4.7% 증가하였는데, 역시 가발·가수염·속눈썹과 같은 특정 품목의 수출 증가가 증가세를 이끌었다.

[그림 1] 2015~22년 연도별 상반기 대중 수입 및 수출

(단위: 만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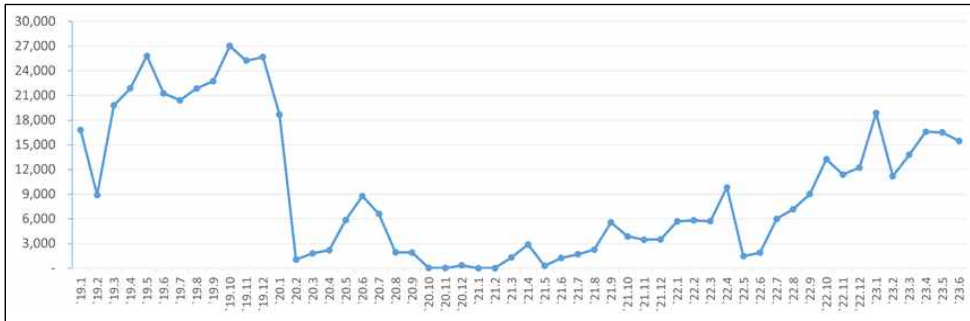


주: 각 연도 상반기.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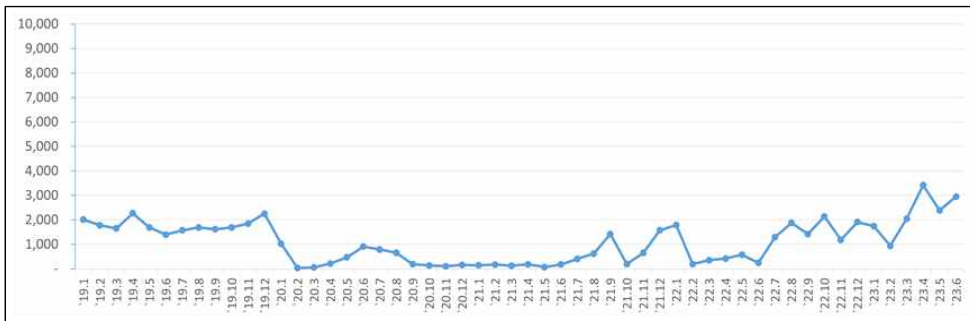
[그림 2] 2019~23년 월별 대중 수입 및 수출

(단위: 만달러)

<수입>



<수출>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대중 수입 확대는 상당한 규모의 상품무역수지 악화를 야기하였다. 2023년 상반기 대중 상품무역수지는 -7억 8,886만달러로 지난해 -2억 6,757만달러 대비 194.8%가 악화되었다. 올해 내내 현재의 기조가 유지된다면 2023년 총 대중 상품무역수지는 약 -16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북한의 상품무역수지를 살펴보면, 2017년에는 약 -15억달러, 2018년에는 약 -20억달러, 2019년에는 약 -24억달러 수준을 기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023년 북한의 상품무역수지 추정치는 2017년과 유사한 수준이나, 2018~19년의 수치에 근거했을 때 북중 무역의 규모가 추가적으로 확대되는 경우 더욱 악화될 개연성도 있다. 다만, 북한의 외화 수급 상황을 고려하면 현재의 상품무역수지 적자 수준은 북한경제에 크게 부담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경험적으로 북한의 대중 상품무역수지는 일정한 적자를 기록해왔고, 한편으로는 최근 북한이 2021~22년 동안 약 70억달러의 가상화폐를 헤킹하는 등 무역 외 분야에서 외화벌이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2. 산업생산 정상화 시도와 밀무역의 재개

대중 수입 증가와 함께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불거진 물자 부족 문제가 다소 해소되고 있는 동시에 산업 생산 정상화를 위한 산업용 원부자재 수입도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에틸렌 중합체, 유기계면활성제, 프로필렌 중합체, 플라스틱 제품, 운송을 위한 승용차 타이어 등 산업용 원부자재 수입이 증가하였다. 또한 산업생산에 쓰이지만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이중용도) 품목도 증가하였는데, 이들 품목의 수입액은 지난 2월 146만달러에서 6월 350만달러로 시간이 거듭될수록 증가하는 모양새이다. 전략 물자의 수입이 산업용 원부자재 수입을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국방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중공업 부문 물자의 수입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산업생산이 점진적으로 회복세에 들어섰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와 반대되는 동향도 포착되는데, 산업생산에 직접 투입되는 원부자재보다 쌀, 비료, 섬유·의류 등 임가공을 위한 원부자재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산업생산의 정상화보다는 단순 임가공 무역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표 1〉 북한의 대중 수입 및 수출 상위 품목 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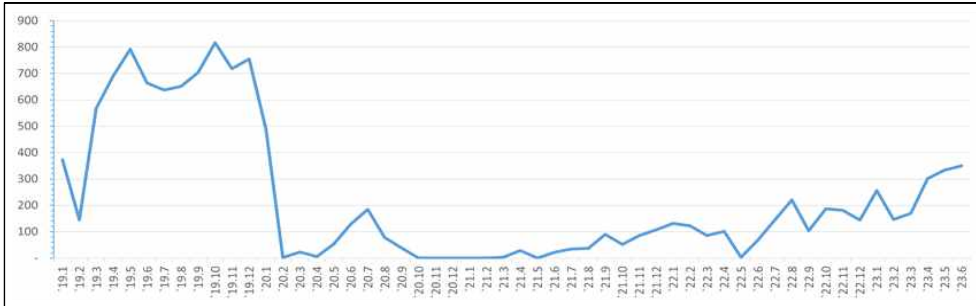
(단위: 만달러, %)

순위	상반기 대중 수입 상위 품목				상반기 대중 수출 상위 품목			
	품목명	HS4	금액	비중	품목명	HS4	금액	비중
1	사람 머리카락	6703	6,571	7.1	가발, 가수염, 가눈썹	6704	7,637	56.5
2	광물성 또는 화학 비료	3105	5,416	5.9	합금철(페로실리콘)	7202	1,626	12.0
3	쌀	1006	5,339	5.8	텅스텐과 텅스텐 암석	2611	1,040	7.7
4	합성필라멘트사직물	5407	4,386	4.7	전기에너지	2716	1,009	7.5
5	메리야스편물	6006	3,530	3.8	플로트 유리	7005	504	3.7
6	대두유(콩기름)	1507	3,179	3.4	탄화물	2849	282	2.1
7	의약품	3004	2,920	3.2	몰리브덴광과 암석	2613	247	1.8
8	사탕수수당(설탕)	1701	2,847	3.1	생사(견, Raw Silk)	5002	217	1.6
9	고무타이어	4011	2,564	2.8	잉곳	7206	156	1.2
10	제조 담배	2403	2,396	2.6	휴대용시계무브먼트	9108	114	0.8
	상위 10개 소계	39,148		42.4	상위 10개 소계	12,833		95.0
	상반기 총합	92,395		-	상반기 총합	13,509		-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 북한의 대중 전략물자(이중용도 품목) 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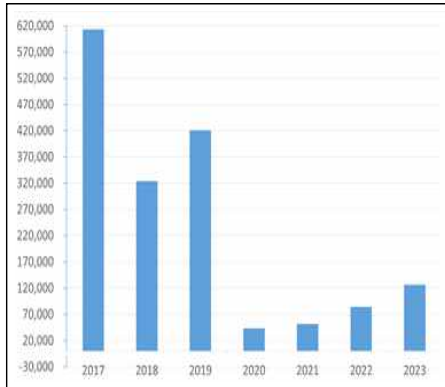
(단위: 만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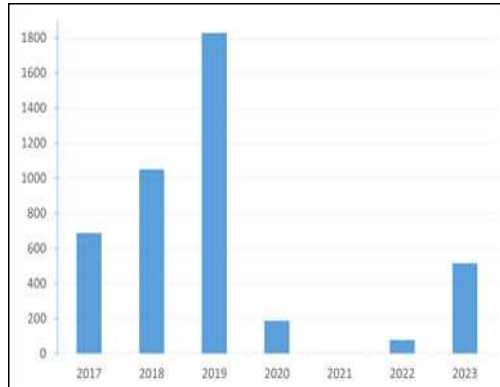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가발·가수염·속눈썹 원부자재 수출입 증가와 함께 섬유·의류 원부자재 또한 특별한 내수 증가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UN 안보리 대북제재에 의해 섬유·의류 원부자재 수출이 금지된 상황에서 원부자재 수입의 지속적인 증가는 북한이 섬유·의류의 비공식 수출(밀수출)을 재개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림 4] 연도별 북한의 섬유·의류 수입



[그림 5] 연도별 북한의 가발·가수염·속눈썹 수출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상반기 동안 산업별 대중 수입액에서 섬유·의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28.7%로 농업(26.1%)과 함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다. 전체 수입에서 섬유·의류 원부자재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월 10.6%(1,183만달러)에서 지난 6월에는 25.3%(3,916만달러)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가발·가수염·속눈썹의 대중 수출액은 지난 2월 544만달러에서 지난 6월 1,875만달러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가발·가수염·속눈썹 원부자재의 대중 수입과 완성품의 대중 수출이 늘고 있고, 별다른 이유 없이 섬유·의류 원부자재의 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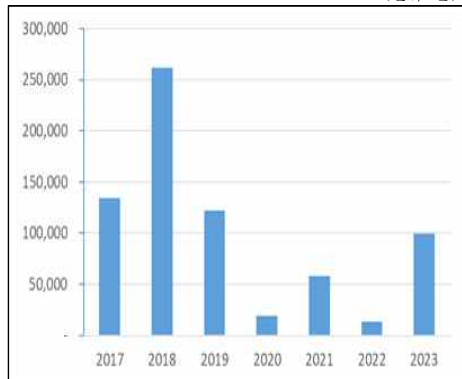
수입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발·가수염·속눈썹의 임가공 생산공정과 섬유·의류의 임가공 생산공정이 유사하므로, 북한이 밀무역 형태로 대중 섬유·의류 임가공 무역을 재개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 흥미로운 점은 섬유·의류 밀무역이 재개되면서 북한이 신규 수출 품목으로 육성하던 비단(견 제품)의 대중 수출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가내수공업 방식이라는 점에서 비단 생산과 섬유·의류 임가공이 중복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3. 농업생산과 식량부족 대응

농업 품목의 상반기 대중 수입 비중은 26.1%로 섬유·의류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한다. 그 뒤로는 화학(16.7%), 플라스틱·고무(15.0%) 순으로 수입되고 있다. 농업 관련 수입 품목에서는 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를 통해 북한당국이 식량난에 대비하여 상반기 동안 쌀 수입을 늘려 갔음을 알 수 있다. 유사하게 화학 부문의 수입도 봄 농사철을 맞이하여 비료 수입이 증가한 것에서 기인한다. 북한은 농업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 중인데, 먹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다른 문제들은 천천히 풀어가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실제로 북한의 대중 수입 상위 품목에도 농업/식량 관련 품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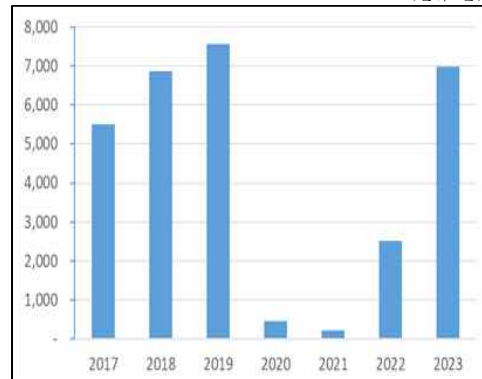
[그림 6] 연도별 북한의 비료 수입

(단위: 톤)



[그림 7] 연도별 북한의 플라스틱 관·호스 수입

(단위: 톤)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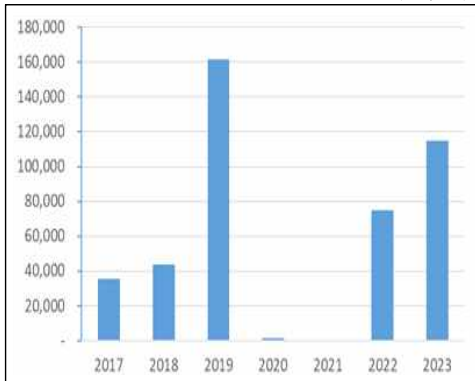
상반기 북한의 주요 대중 수입 품목 2위를 차지한 복합화학비료(HS 3105)의 수입은 5,416만 달러(총수입의 5.9%, 9만 9,247톤)를 기록하여 북한이 봄철 모내기 준비에 수입 역량을 기울이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2023년 상반기 비료 수입량은 2017~19년 연평균

수입량 17만 2,967톤의 57.4%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올해 상반기 수입량은 코로나19로 국경봉쇄 상황을 고려하면 상당히 많은 양이라고 할 수 있다. 대중 수입 상위 10개 품목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플라스틱 관·파이프·호스 등의 수입도 증가하고 있는데,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관개수로 공사를 하고, 태풍에 대비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상반기 북한의 주요 대중 수입 품목 3위를 차지한 쌀(HS 1006)의 경우 5,339만달러(총수입의 5.8%, 11만 4,997톤)의 수입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2017~18년 연평균 총수입량 3만 9,556만 톤의 2.9배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언론에서는 2022년 쌀 생산량이 부족하여 식량난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며, 북한 당국이 이에 대비하여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50만톤의 쌀을 수입할 것이라고 보도하였는데, 실제로 북한 당국은 2022년 7월~2023년 6월 동안 18.9만톤의 쌀을 수입하였다. 보통 상반기에는 북한이 춘궁기를 경험하기 때문에 식량 수입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작년부터 현재까지 이례적인 쌀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다가 춘궁기(3~5월)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쌀 수입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두고, 북한 당국이 양곡 전매제 복원을 시도하면서 쌀을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다는 주장¹⁾도 제기되고 있다. 식량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²⁾ 이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한 방안을 경제 전반에 대한 당국의 통제 강화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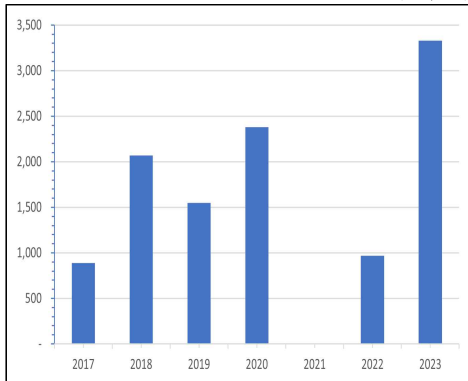
[그림 8] 연도별 북한의 쌀 수입

(단위: 톤)



[그림 9] 국제기구의 대북 전지 부유 지원량

(단위: 톤)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한편, 상반기 북한의 대중 주요 수입 품목에는 여전히 수입산 식료품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두유(6위), 사탕수수당(8위), 밀가루(12위)가 대표적이다. 대두유(HS 1507, 콩기름)

1) 임수호, 「북한 양곡전매제 복원 시도는 성공할 수 있을까?」, 『이슈브리프 434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3.
2) 농촌진흥청이 추정한 2022년 식량작물 생산량은 451만톤으로 2021년 대비 18만톤 감소하였다.

수입은 3,179만달러(총수입의 3.4%)로 6위, 사탕수수당(HS 1701, 설탕) 수입은 2,847만달러(총수입의 3.1%)로 8위, 밀가루(HS 1101) 수입은 1,801만달러(총수입의 1.9%)로 각각 이루어졌는데, 이 품목들은 북한주민의 생활 안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식료품이다. 북중 무역이 정상화됨에 따라, 특히 지난 4월 이들 식료품이 대규모 수입됨에 따라 북한 장마당에서 수입 식료품의 가격도 안정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III. 대외관계 개선과 무역/지원 확대

1. 러시아의 대북 식량·정제유 수출 재개

최근 북러 교역이 재개된 것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언론 동향이 포착되는데, 러시아의 대북 식량 수출과 정제유 수출 재개가 그것이다. 지난 7월 러시아 연방수의(veterinary)세관은 북한에 밀가루를 수출하고 있음을 여러 차례 언급하였는데, 1월(정확한 수치 모름), 4월(1,280톤), 5월(1,276톤), 6월(1,080톤)에 걸쳐 월평균 1,200톤가량의 밀가루를 수출했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밝혔다.³⁾ 또한 알렉산드로 코즐로프 천연자원·환경부 장관 겸 북러 정부 간 위원회 공동의장에 따르면 러시아 곡물 회사들이 대북 곡물 수출을 협의하고 있으며, 북한에 곡물과 고기류의 수출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의 대북 곡물 수출은 중국의 대북 식량 수출 물량보다 현저히 작은 규모이나, 최근 북러 군사 및 노동자 협력 가능성 때문에 북러 무역 재개와 활성화는 정치·외교적 의미가 크다. 한편, UN 안보리 홈페이지 고시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 2월 2년 6개월 만에 대북 정제유 수출을 재개하였으며, 그 결과 상반기 북한의 정제유 수입량은 이미 2022년 실적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는 2022년 9월 “북한이 요구할 경우 원유와 석유제품 공급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러시아의 정제유 대북 반입량에 대한 보고는 이것이 실현되었음을 방증한다. 게다가 9월 18일 러시아 외무부는 대북제재와 관계없이 북러 협력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평양-블라디보스토크 항공편 운항도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다방면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북러 경제협력 동향에 대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3) 이상민, 「러, 밀가루 1천톤 또 북에... 보리 등 곡물 수출 이어질 듯」, 『RFA』, 2023. 7. 6.

2.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재개

코로나 엔데믹 전환 이후 스위스 개발협력청과 프랑스 프리미어 어전시 등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재개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누적되어 있던 재고분이 한꺼번에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스위스 개발협력청의 지원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대량의 전지분유가 북한에 반입되고 있는데, 4월에만 1,053톤이 지원되었고, 2023년 1~6월 동안 3,331톤의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북한 내 분배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북 지원 단체 직원이 북한에 파견되어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측이 분배 결과로 제출한 결과에 의존하여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상황이다.

IV. 평가 및 전망

북한이 코로나 엔데믹으로 전환하면서 대중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나, 아직 산업생산을 회복하여 경제발전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겨우 버텨내기(대규모 아사자 발생 방지)를 하고 있는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산업생산 정상화 속도가 더디고 전자제품과 생산설비 등 핵심 제품의 수입이 불가능해 산업생산 정상화의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하반기에는 산업생산 정상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외무역 정책은 대규모 인도적 위기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판단된다. 2023년 상품수지 적자는 약 16억달러까지 커질 수 있으나, 북한이 충분한 외화(2021년 말 약 70억달러)를 가지고 있어, 이 정도의 상품수지 적자는 1~2년은 큰 부담 없이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반기 북중 무역의 규모는 현재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중 수입은 매달 약 1억 7,000만달러, 대중 수출은 매달 약 3,000만달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수출입이 추가적으로 늘기 위해서는 북중관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북중관계가 조정기에 들어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 7월 북한 전승절에서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국회 부의장격)을 보냈으로써 북중관계 개선에서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다. 중국은 북중 무역에 있어서도 북한의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때문에 북중 무역 규모가 획기적인 전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북중관계의 추가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1~2년 동안은 북러 관계 개선을 통해 국면 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판단되나, 북중, 북러 관계가 북한의 경제난을 반전시킬

수 있을 정도로 주요한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러 무역은 규모가 크지 않아 정치외교적인 의미가 크고, 북한경제에는 북중 관계와 북중 무역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더 많이 받기 때문이다.

한편, 하반기에도 섬유·의류 밀무역이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 규모가 커지면서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관심은 밀무역보다는 북한의 사이버 해킹 능력에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2021~22년 동안 약 70억달러의 가상화폐를 탈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북한이 2021년까지 보유했다고 알려진 외화 총액(약 70억달러)을 맞먹는 규모여서, 만약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 규모가 사실이라면 이제는 북한의 밀무역을 통한 외화조달은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끌지 못할 개연성이 있다.

참고문헌

이상민, 「러, 밀가루 1천톤 또 북에 ... 보리 등 곡물 수출 이어질 듯」, 『RFA』, 2023. 7. 6.
임수호, 「북한 양곡전매제 복원 시도는 성공할 수 있을까?」, 『이슈브리프 434호』, 국가안전
전략연구원, 2023.

<웹사이트>

중국해관총서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v.cn>.